Entertainment p/16

박시후 '강제성은 없었다'

Entertainment p/17

베두나 짐 스터게스 열애설

Entertainment p/14

박은지 첫 단독 MC 발탁

실망 안겨준 쌍용차 찔끔 800억

대주주 투자규모 기대치 한참 밑돌아 정상화 헉헉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책임회피 태도에 직원 분노

지난 15일 쌍용차 주가는 한때 전일 대비 12.34%(7100원 연중 최고가)까지 급등했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그러나 약발은 몇 일 기준으로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18일부터 주가가 급락, 19일 6180원으로 마감했다. 투자 발표 전으로 원위치됐다.

주가 하락 원인은 마힌드라 투자 금액이 800억원대에 불과했기 때문. 투자 규모가 기대치를 한참 밑돌아 '없어도 그만'인 호재로 전락했다.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쌍용차의 지속 경영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 투자→연구개발→생산→판매→투자의 순환구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쌍용차의 경우 투자가 부실해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지적이다.

쌍용차의 유상증자 소식은 ▲상하이차 인수·매각 굴욕 ▲2200명 규모 해고 ▲근로자 22명 자살 ▲새 대주주 직접 투자액 0원에 이르는 쌍용차 비극 10년사에서 몇 안 되는 희망의 빛이었다.

하지만 이날 '희망'이 됐던 800억원은 어느덧 '실망'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2015년 출시 예정인 소형 SUV 'X100' 제작에 드는 2900억원에 절대 미달한다. 3년 분납으로 따져도 연간 1000억원이 든다.

현재 쌍용차는 X100을 포함한 신차 3종, 새 엔진 6종 개발을 장기 프로젝트로 확정했다. 여기에 드는 돈만 1조원에 이른다. 은행 빚 만기 연장 등의 노력으로 2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쌍용차 측의 주장이다. 그렇더라도 개발비 1조원의 20%에도 못 미친다.

설상가상으로 쌍용차는 무급휴직자들에게 밀린 임금 12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상품 개발에 돈을 투입하기도 전에 인건비, 그것도 과거에 주지 않은 돈을 상당 부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쌍용차의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이 드는 또 다른 대목은 마힌드라의 태도다.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자동차 사장은 돈과 관련한 문제는 쌍용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엔카 사장은 최근 중국 전 추가 현금 투자는 없다고 못을 박은 뒤 "쌍용차 스스로 차를 팔아 이윤을 남기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쌍용차의 재무 상황과 시장점유율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2008·2009년 각각 7097억, 3463억원의 큰 적자를 냈고 2011년 1128억원, 지난해 800억원대(추정)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0년 흑자를 냈으나 규모는 81억원이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적자의 늪에서 탈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차라도 잘 팔리면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지난해 기준 시장점유율은 3%대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자금을 단번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게다가 쌍용차는 클린기업(부채비율 100% 미만)이기 때문에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상훈기자 zan@metroseoul.co.kr

오늘은 이 모습 못 봅니다 20일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전국 택시 16만여 대가 운행을 중단하는 가운데 19일 서울의 택시승강장에 영업 중인 택시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결국 택시 16만대 '24시간 스톱'

오늘 여의도서 비상총회 · 밤11시~새벽5시 매일 운행중단 추진 논의

20일 오전 5시부터 전국 25만 대의 택시 중 16만여 대가 24시간 동안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19일 서울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개최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택시 행사자 30만 명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정부와 여야 정책위 의장, 간사 등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통해 전날까지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국 이견 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들은 비상총회를 통해 앞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지속적으로 운행을 멈추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하철·버스 막차 연장

국토해양부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오전 7~9시, 오후 7~9시 출퇴근시간대에 시내외버스 집중 배치와 증차, 연장 운행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하철 막차시간을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1시에서 2시로 한 시간 늦춘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개인택시 1만6000여 대의 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배동호기자 eleven@

졸업식장 '사탕 꽃다발' 활짝

생화값 오르자 비누 등으로 만든 대체꽃 인기

"사탕 꽃다발 비누 꽃다발 있어요."

18일 오후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백화여대 앞 좁은 골목 양쪽을 점령한 30~40여 개의 좌판에 꽃다발이 빽빽하다. 언뜻 평범한 졸업식 꽃다발로 보이지만 대부분 생화가 아니다. 얇은 비누로 꽃잎을 만든 비누 꽃다발, 초콜릿과 막대사탕으로 장식한 사탕 부케 등 종류가 다양하다.

연이은 한파가 꽃값 상승을 부르면서 졸업식 풍경을 바꾸고 있다.

화훼업계 관계자는 "한파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물량이 줄고 출하 시기까지 늦어졌다"면서 "화훼농가 난방비까지 오르면서 꽃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aT화훼공판장에 따르면 현재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장미 '비탈' 품종의 한속(10송이) 평균가는 8790원이다. 비수기인 7월(지난해 기준)의 1370원과 비교해 6.4배나 차이 난다. 지난해 같은 달 평균가인 7396원보다도 약 20% 오른 수치다.

지난달 기준 장미 전체 평균가는 6304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329원에 비해 약 46% 올랐다.

상인 A씨는 "여전히 값은 좀 비싸도 생화를 찾는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생화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대체 꽃다발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학사모를 쓴 곰돌 인형과 비누로 만든 장미로 장식된 꽃다발

밀가루 또 껑충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밀가루·장류·김치 등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밀가루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약삭빠른 식품값 인상

그동안 가격 못올린 업체들 새정부 출범 앞두고 줄줄이 '올려! 올려!'

올해 초부터 도미노처럼 번졌던 식품업계 가격 인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막차라도 타려는 듯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확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격 인상 소식이 없는 제과업계 또한 인상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SPC는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19일 "밀가루값보다는 인건비나 유통비 같은 고정비가 많이 올라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가격 인상 소식이 없는 라면 1위 업체인 농심의 경우 "현재 검토하는 바 없다"는 입장이다. 라면의 경우 지난해 삼양라면과 팔도가 가격을 올렸고 오뚜기는 동결했다.

김치 값도 뛴다. 풀무원은 유통업체에 김치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현재 인상폭을 조율하고 있으며 7% 선에서 품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의 경우 10% 안팎으로 올릴 계획이다. 업계 1위인 대상FnF의 종가집은 최근 포기김치 등 김치 50여 개 종목의 가격을 평균 7.6% 인상했다.

연이은 식품업계들의 가격 인상은 꼬리를 물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양사는 20일부터 밀가루 전 품목 가격을 평균 8~9% 인상한다. 과자값도 오른다. 프링글스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공급하는 감자칩 가격을 25일부터 평균 10%가량 인상한다.

술값의 경우 최근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참이슬)에 이어 소주 처음처럼 출고가를 8.8% 올렸고, 위스키도 스카치블루를 5.6% 인상했다. 전통주의 경우 국순당이 백세주 가격을 6~7% 올리기로 결정했다.

/한효순기자 hsoon@metroseoul.co.kr

충남교육감 음독… 생명엔 지장 없어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음독자살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9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대전시 교육감 관사에서 김 교육감이 음독을 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9일 음독을 해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송용복 부교육감은 김 교육감을 면담하고 나서 "부하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하지 못했다는 중압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충남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정기검사 안받으면 이젠 대포차

서울시 4월부터 번호판 떼기로

서울시가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세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현장 단속을 통해 영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CCTV를 탑재한 차량 20대와 스마트폰 54대를 활용해 이 같은 대포차량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그리고 6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압류와 저당권이 많은 차량이다.

서울에는 18만 대의 대포차량이 있으며 이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도운기자

ROTC '여풍당당' … 숙명여대 아성 울해는 성신여대 동계 군사훈련 1위

여성국방장관 도전!

신세라 대대장 후보생 포부

전국에 두 곳뿐인 여자대학교 학군단(ROTC)이 전국 110개 ROTC가 참가한 동계 군사훈련에서 2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19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이 학교 ROTC 52기 29명은 방학 기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진행된 동계 훈련에서 화생방, 개인화기(소총), 행군 등 6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내며 최고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숙명여대 ROTC가 1위에 올랐다. 전국 110개 학군단 중 여대는 성신여대와 숙명여대 단 두 곳이다. 이로써 2년 연속 여대가 동계훈련 1위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날 오전 강도 높은 겨울방학 훈련을 마치고 곤비로 인터뷰에 응한 성신여대 ROTC 52기 신세라(23) 대대장 후보생의 목소리에는 패기가 넘쳤다. "우리 학교가 1위를 차지한 건 모두 한마음이 돼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스포츠레저학과 10학번인 신 후보생은 딸부잣집 셋째 딸이자 막내딸이다. 어릴 적부터 군인이 꿈이긴 했지만 막연한 장래희망일 뿐이었던 신 후보생에게 2011년 성신여대 ROTC 창설은 운명과 같았다.

지난해 성신여대에서 열린 ROTC 52기 후보생기 동계기초군사훈련 출정식 모습 /성신여대 제공

◆"우리 라이벌은 더 잘해야 한다는 사명감 뿐"

신 후보생은 "처음 ROTC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딸 셋 중 막내인 제게 '남자들 세계에서 힘들지 않겠냐'고 걱정하셨다"면서 "지금은 제일 열심히 응원하신다"고 웃었다. 또 "우리 라이벌은 남성 후보생, 숙명여대 ROTC, 육군사관학교가 아니다"면서 "오직 더 잘 해야 한다는 사명감뿐"이라고 말했다.

여성 후보생이라 힘든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신 후보생은 "군사훈련에는 성별로 인한 우대도, 차별도 없다"면서 "체력뿐 아니라 시력, 지식, 언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성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생의 최종 목표는 국방부 장관이다. 신 후보생은 "당장은 임관이 목표지만 향후 장군을 거쳐 국방부 장관이 되고 싶다"면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여성 국방부 장관도 가능한 것"이라고 미소지었다.

◆자발적 훈련이 1위 비결

성신여대 ROTC 훈육관인 오용정 대위는 "여성 후보생들은 임관 후 지휘해야 할 남성들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는 독한 의지 때문에 체력 단련을 정말 열심히 한다"면서 "의무복무를 하는 남성 후보생들과 달리 여성 후보생들은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삼성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 30% 첫 돌파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갤럭시S4 다음달 14일 공개

IT전문 외신들 보도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S4'가 다음달 14일 공개가 유력하다.

삼성전자 전문 사이트 삼모비일, 시넷, 더버지 등 정보기술(IT) 전문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했다.

갤럭시S4는 옥타코어 칩에 4.99인치 슈퍼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풀HD 화면을 장착하고 안드로이드 4.2.2 '젤리빈' 운영체제(OS)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모바일용 옥타코어 칩을, 삼성디스플레이는 4.99인치 슈퍼아몰레드 풀HD 디스플레이를 각각 공개한 바 있다.

뒷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로 풀HD급 동영상을 30fps(초당 프레임)로 찍을 수 있고, 앞면 카메라는 200만 화소로 HD급(720p)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4가 출시되면 팬택의 '베가 넘버6', LG전자의 '옵티머스G 프로' 등 다른 국내 제조사의 풀HD 스마트폰과 경쟁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신제품 출시 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훈기자 zen@

'흔들리며 피는 꽃' 교과서에 남는다

정치인 작품 수록 허용하지만 사진·이름 등 소개글은 금지

앞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어도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은 실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8월까지 진행되는 올해 교과서 검·인정심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새 검정 기준이 적용되는 첫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검정도서와 고등학교 검·인정도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치인의 작품은 정계 입문 전의 작품이되 학습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으로 제한된다.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 등은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검정심의회 판정을 거쳐 수록할 수 있다.

이 절차가 시행되면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 작품은 교과서에 게재할 수 있지만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이름과 사진 등은 수록이 금지된다.

/장윤희기자

퇴출 충격 속에서도 땀방울 올림픽 핵심 종목 탈락이라는 충격 속에서도 레슬링 열기는 멈추지 않았다. 19일 강원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 '2013 세계 레슬링 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이 열린 가운데 선수들이 몸풀기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순 정신과 상담엔 'F코드' 표기안해

앞으로 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외래상담 환자에 대한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에 대해 횟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적 시선이나 낙인효과가 두려워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조기 정신건강 악화 환자들이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약물 처방 없는 외래 상담의 경우에도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과 질환 청구코드인 F코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 이를 보건 일반 상담인 Z코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도록 했다.

다만 초진 환자가 아닌 이미 정신과를 이용 중인 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경험자 중 15.3%만 의료진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등호기자 eleven@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73> 그림 박상철

율곡 이이 사망

1584년 2월 20일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 사상가인 이이가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율곡은 호의 하나다. 사헌부 감찰을 지낸 이원수의 사임당 신씨의 셋째 아들로 외가인 강릉에서 태어난 이이는 조광조의 계지인 백인걸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는데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으로 합격한 천재였다. 사망 전까지 20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십만양병 등 개혁안을 주장했고 실용 연구의 후진 양성에 힘썼다. 사후 우리나라 18대 명현 가운데 한 명으로 문묘에 배향됐었다.

가수 이름을 왜 정치에… 쓰려면 '경고성 내각'으로!

"성시경 내각 쓰지마" 성시경 팬들 뿔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에 대해 '성시경 내각'이라는 비판이 일자 가수 성시경의 팬들이 반발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19일 방송을 통해 "박 당선인의 인사가 '성시경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자 가수 성시경씨의 팬들이 '경고성 내각'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제안했다"고 전했다. 경고성 내각은 경기고-고시-성균관대 출신을 이르는 말이다.

이런 팬들의 반응은 지난 18일 박 당선인의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내정 이후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내각이란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다.

성시경의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대신 경고성 내각으로 부르는 게 어떠냐"는 역제안을 내놨다.

일부 네티즌은 미국 여자프로골프에서 활약 중인 위성미의 이름을 따 '위성미(위스콘신대-성균관대-미래연구원) 내각'이라는 새로운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앞서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 대거 기용돼 '고소영 내각'이란 말이 회자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내각에 내정된 인사들(30명)은 평균적으로 수도권(11명) 출신의 59세 유학파(18명)이며 종교는 기독교(종교 확인된 17명 중 12명)를 믿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10명)와 새로 떠오른 성균관대(7명)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기고(7명)와 서울고(5명) 등 전통 명문고 출신이 입각했다. 고시 출신은 16명이다. /김유리기자

'강한 청와대' 친정체제

정부수석에 '박근혜의 입' 이정현 내정… 내각은 '전문성' 강화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내정자(오른쪽부터)가 1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이정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하는 등 수석비서관 후속 인선을 단행함에 따라 청와대와 내각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다.

박 당선인은 이날 외교안보수석에 주철기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경제수석에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고용복지수석에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교육문화수석에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 미래전략수석에 최순홍 전 유엔 정보통신기술 국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김장수 국가안보실장-박흥렬 경호실장의 3실장(장관급) 체제로 진용을 갖췄다. 수석비서관은 이날 발표된 6명에 전날 발표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를 더해 9수석 체제로 움직인다.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는 '친정 체제' 완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당선인은 당초 '낮은 비서실'을 모색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친박 중진의 허태열 비서실장-이정현 정무수석 등 최측근이 배치되면서 '강한 청와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내각은 교수·관료 중심의 인선을 통해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8명 중 사법·행정·외무고시 출신 후보자는 절반이 넘는 11명에 달한다.

한편 박 당선인은 청와대 대변인 인선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35명의 비서관 인선은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해당 분야에서 능력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들이 발탁됐다"며 "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강력한 친정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며 "인사를 통한 대탕평과 지역 안배, 국민 통합은 없었으며 박 당선인의 콤플렉스인 불통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유리기자 grace5@metroseoul.co.kr

"자전거 타고 4대강 순례"…MB 퇴임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이제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이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퇴임 후 꽃피는 계절이 오면 4대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며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 전문가 그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도덕적 흠결 없는 정부를 바랐지만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김유리기자

유시민 "정치 떠납니다"

유시민(사진)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유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유시민을 성원해주셨던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저를 용서해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후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와 야권 대선 패배를 겪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정치인생을 정리하겠다"고 자주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곧 정치 인생을 정리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출간한다. /김유리기자

구청소식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지원

서울 금천구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금은 식품 위생관리와 영업시설 개선 시 영업자의 부담 경감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통한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은 시설 개선과 메뉴 개발 등에 소요되는 총 자금의 80%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장을 보다 나은 시설로 개선하고자 할 때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유흥주점과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2)2627-2606

中 '카지노 빗장' 풀리나

본토 하이난섬에 첫 영업허가 '합법화 가능성'… 제주는 '요우커' 유치 비상

중국 정부가 남부 하이난섬의 카지노 영업을 최근 허가했다. 대륙 내 도박 금지 '빗장'이 풀렸다는 신호다. 이에 중국에서는 '제2의 마카오'가 본토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반면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바쁜 제주도에는 비상이 걸렸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이난 싼야에 들어선 맹그로브 트리 리조트 월드 내에 카지노 바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일반 카지노와는 달리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게임을 할 수 있다.

손님들은 500위안(약 8만6000원)의 티켓을 사서 게임을 하며 20~2000위안까지 걸 수 있다. VIP룸에서는 10만 위안 이상의 베팅도 가능하다. 도박에서 이기게 되면 맹그로브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이 포인트로 리조트 숙박비를 결제하거나 카지노에서 파는 아이패드나 여행 가방 등을 살 수 있다.

현재 리조트는 숙박객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내년에 전체 리조트가 완공되면 현지 주민도 출입이 허용된다.

장비 오위안 리조트 대표는 "중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마카오 밖에서 승인해준 첫 번째 카지노 리조트"라면서 "현재 (카지노 도박의 합법화) 단계는 아니지만 미래에 (합법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국 정부가 마카오 외에 본토에서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하이난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카지노가 주목받는 것은 중국인이 외국 카지노에서 쓰는 돈이 본토로 흡수될 가능성 때문이다. 마카오 카지노 시장은 중국인의 폭발적 수요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도박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 각국이 중국을 겨냥해 카지노 개설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특히 제주도는 마카오보다 낮은 세금 등을 내세우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주도의 8개 카지노 매출이 중국인 관광객 수에 비례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100만 명에 달했고 올해는 15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명선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오바마 가는 곳 '골프백'도 달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작은 사진)와 라운딩을 하며 구설에 올랐다. [illegible] 국정은 뒤로한 채 호화 골프를 즐긴다는 비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곧바로 플로리다에 있는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우즈의 [illegible] 코치에게 개인 레슨도 받았다. 사진은 18일 플로리다주 [illegible]에서 주말 휴가를 마친 오바마 대통령(왼쪽)과 골프 가방을 잔뜩 든 수행원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계단을 오르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온라인도박에 빠진 실리콘밸리

페이스북 등 수익원 찾기 게임 업체와 제휴 서비스

온라인 도박이 미국 IT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도박의 메카 라스베이거스가 실리콘밸리라는 새 경쟁자를 맞게 됐다고 19일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여름 빙고게임 사이트 잭팟조이와 손잡고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셜게임 붐벨의 개발사인 징가도 조만간 자사 캐릭터들을 활용한 도박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의 주 타깃은 미국보다 온라인 도박 규제가 약한 영국 등 해외시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정부들은 세수 확대를 노리고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상황은 급변할 조짐이다.

네바다주와 델라웨어주는 이미 온라인 도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뉴저지주도 몇 달 내로 이런 흐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조사 기관 주니퍼 리서치는 2017년이면 모바일 도박산업 규모가 1000억 달러(약 10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국현기자 [illegible]

日업체 "삼성 따라잡자" 영어 시험도 삼성처럼

일본 전자업체인 NEC가 옛 라이벌인 한국의 삼성그룹과 똑같은 영어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NEC는 세계 40개국에서 시행하는 오픽(OPIc)이라는 영어회화 능력시험의 일본 판권을 삼성그룹에서 사들였다. 삼성은 오픽의 아시아 지역 판권을 갖고 있다.

NEC는 앞으로 3년간 자사와 다른 회사 직원 10만 명에게 이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NEC가 별안간 영어회화 능력시험의 판권을 사들인 이유는 삼성그룹이 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NEC는 삼성그룹이 세계적으로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사업을 담당할 인재를 효과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이 해외에 인재를 파견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오픽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미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illegible]
TEL 02)721-[illegible], FAX 02)730-1551

등록인·발행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조[illegible]
광고국장·전략	[illegible]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859-2100
독자센터	02)721-3882

today metro@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수차된 차 지켜주는 직업도 있네
골드 미스만 노리는 인터넷 꽃뱀

KOSDAQ

507.16 | 512.53 | 514.58 | 518.52 | 522.39 (+3.87)

2/13 2/14 2/15 2/18 2/19

Nikkei (일본) 11372.34 (-35.53)

Hang Seng (홍콩) 23143.91 (-238.03)

Shanghai (중국) 2382.91 (-38.65)

Dow Jones (미국) 13981.76 (+8.37)

EXCHANGE RATE

달러	1090.50
엔(100)	1156.73
유로	1441.82
위안	173.08

62요금제 사용량은 34요금제

다 쓰지도 못하는 제공량 이월도 안돼 소비자 불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필요 이상의 요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3G 및 LTE 휴대전화 이용자 1511명을 설문해 보니 3G '54 요금제' 가입자의 월평균 음성통화 사용량이 기본 제공량의 74.3%, 문자서비스는 36.1%에 그쳤다.

LTE '62 요금제' 가입자도 기본 제공량 중 음성통화는 68%, 문자서비스는 28.6%, 데이터통신은 56.7%만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28.4%는 기본 제공량의 잔여분을 이월해주기를 원했다.

기본요금 인하(17.6%)와 맞춤형 요금제 다양화(15.7%) 요구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기본 제공량 잔여분의 이월 및 맞춤형 요금제의 확대 등 요금 체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에 대해 "스마트폰용 정액 요금제는 미이월을 전제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묶음형 할인 상품으로 음성·문자·데이터를 개별 이용할 때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

한국 발등의 불 '중국 성장'

"엄청난 기술개발 속도로 우리경제 위험 요인 부상" 전문가들 잇단 진단·조언

한국이 중국 경제의 성장을 더는 반길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에 올라서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맹추격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졌다는 지적이다.

19일 국제금융센터의 이지은 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중국 경제의 산업 고도화 진전으로 중국의 성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중 간 기술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최근에는 우리 주력 품목 일부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산업기술재단 자료를 인용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화학전지·이동통신 등의 기술 격차도 1~2년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2011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에서 탈락한 26개 품목 가운데 12개를 중국이 대체하는 등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향후 2~3년 안에 대형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대형화를 마무리하면 경쟁력이 더욱 개선되고 영향력도 커질 전망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중국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췄고, 이런 중국의 기파른 기술 성장세는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산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투자증권 유익선 연구위원은 "아직 한국과 중국 간의 하이테크 기술 수준 차이는 크지만 우리나라를 따라잡는 중국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는 충분히 경계할 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는다.

삼성경제연구소 엄정명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과 달리 자원이 한정돼 있어 선택과 집중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전기전자(IT)와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과 신성장 고부가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홍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현빈과 스마트TV 'F8000'… 눈이 즐겁네 19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스마트 TV 신제품 미디어데이에서 김현석 삼성전자 부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배우 현빈(왼쪽부터)이 올해의 전략 제품 'F8000'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올해의 전략 제품인 'F8000' 시리즈를 소개하고, 삼성 UHD TV 'S9' 등 초대형 프리미엄 TV도 선보였다. /뉴시스

몸 푸는 아파트…가격·거래 반등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늘어나고, 강남 재건축 일부 가격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114와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8일 기준 881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전달의 1174건보다는 적지만 설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들었고 아직 영업일수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서울 아파트시장 거래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었고 가격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별 거래 현황을 보면 송파구와 도봉구, 관악구는 이미 지난달 거래량을 넘겼고 강동구와 노원구, 양천구, 동대문구 등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거래가 늘면서 일부 아파트 가격은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8% 하락했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0.23% 올랐다.

올해 서울에서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15일 기준 강남 개포 주공3단지(전용면적 35.87㎡)규모로 작년 말보다 10.4% 상승했다. /김지성기자

1인당 4.5장

카드수 금융위기 직후 수준

신용카드 발급량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일상적인 결제 때 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은 65%나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이 지난해 3분기까지 발급한 신용카드는 1억1712만 장으로 경제활동인구 2576만 명의 4.5배다. 취업자 또는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1인당 4.5장의 신용카드를 가진 셈으로, 2009년 4.4장과 비슷하다. /김지성기자

"펀드베테랑이 제안하는 손쉬운 해외채권 투자방법"

글로벌 분산투자 채권펀드	글로벌 이머징 채권펀드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펀드	글로벌 투자적격 채권펀드	글로벌 물가연동 채권펀드

[판매사]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펀드베테랑-한국투자신탁운용
02)3276-4700 www.kim.co.kr

■한국투자 글로벌분산투자 증권자투자신탁 H/UH [채권-재간접형] ■한국투자 글로벌이머징 증권자투자신탁 U/UH [채권-재간접형] ■한국투자 글로벌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 U/UH [채권-재간접형] ■한국투자 글로벌투자적격 증권자투자신탁 U/UH [채권-재간접형] ■한국투자 글로벌물가연동 증권자투자신탁 U/UH [채권-재간접형] ※공통 ▶환매방법: 제5(6)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10)영업일 지급 ( )는 17시 경과 후 환매시 적용 ▶총보수: Class A 연0.658%(판매 연0.50%, 운용 연0.12%, 기타 연0.048%) Class C 연0.968%(판매 연0.80%, 운용 연0.12%, 기타 연0.048%)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납입금액의 0.5% Class C 없음 ▶환매수수료: Class A 없음 Class C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단, 전환에 의한 환매 시 수수료 없음)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시기 전에 환매방법과 보수 등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신탁운용

한국폰 '북미 3분의 1' 터치

작년 삼성·LG 스마트폰 합산 점유율 33% 돌파

북미에 팔린 스마트폰 3대 가운데 1대는 한국산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지난해 북미 시장 점유율은 26.6%, LG전자의 점유율은 7.1%였다고 밝혔다.

양사 점유율을 합하면 33.7%가 된다. 국내 스마트폰 브랜드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3분의 1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제조사의 북미 시장 점유율은 2010년에는 13.6%로, 당시 이 지역 1위 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현 블랙베리)의 28.9%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나 2011년에 갑절 수준인 25.8%로 성장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에도 높은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애플(37.6%)에 이어 각각 이 지역 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모토로라와 HTC, RIM 등이 뒤를 이었다.

2010년 1위 업체였던 RIM은 점유율이 쪼그라들면서 지난해 국내 제조사 전체뿐 아니라 LG전자와 비교해서도 점유율이 2.1% 뒤졌다.

국내 업체의 점유율 상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3가 소송 등을 거치면서 얻은 인지도 상승을 기회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LG전자도 옵티머스G로 재기에 성공하면서 얻은 결과로 해석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브랜드가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고 LG전자의 G시리즈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한국 브랜드의 북미 시장 지배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북미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순위	업체	점유율(%)
1	애플	[illegible]
2	삼성	26.6
3	LG	7.1
4	모토로라	5.8
5	HTC	5.1
6	리서치인모션	5.1
7	ZTE	3.4
8	화웨이	3.0
9	노키아	1.5
10	소니	0.9
	기타	3.6

접시마다 '꽃 진지' 19일 한한경 도자기 브랜드 젠(ZEN)이 봄꽃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한다. /연합뉴스

올들어 증시 '작은 고추가 맵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서 대형 종목은 부진한 데 비해 소형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면서 차익 실현이 쉬운 소형주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 대형주지수는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 1991.07에서 이달 18일 1971.01로 약 7주 사이 1.01% 하락했다. 반면 코스피 소형주지수는 같은 기간 1300.82에서 1366.86으로 5.06% 뛰었다. 코스피 중형주지수는 소폭(0.34%) 내렸다.

소형주의 약진은 코스닥 시장에서 더 두드러졌다. 작년 말부터 전날까지 코스닥 소형주로 구성된 코스닥 스몰지수는 1170.80에서 1265.56으로 8.10% 급등했다.

이 같은 현상은 코스피가 뚜렷한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투자자들은 소형주에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민지기자 lazyhand@

다이렉트 차보험 시장 삼성화재 진출 본격화

삼성화재가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이 시장에 진출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나 보험료 인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3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부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도 텔레마케팅 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저렴하게 가입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그런 결정을 였다"고 전했다. /김지성기자

OB '맥주 소믈리에' 키운다

美 맥주전문가 교육프로 '씨서론' 도입·운영키로

오비맥주가 맥주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오비맥주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맥주 소믈리에인 '씨서론(Cicerone)'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맥주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OB골든라거 씨서론 아카데미'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맥주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인 씨서론 교육 방식을 도입한 국내 첫 프로그램으로 맥주의 보관·관리, 맥주별 서빙법, 안주와의 조화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거나 창업 희망자, 중소 규모 맥주 생산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며 소비자 대상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의 유명 씨서론인 랍 셀먼(사진)이 초청돼 맥주를 제대로 즐기는 노하우와 관리 요령 등을 설명했다. 최근 한국 맥주를 처음 접했다는 랍 셀먼이 OB골든라거를 맛본 소감은 어땠을까. 지난해 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맥주는 따분하다. 북한 맥주보다 맛이 떨어진다"고 보도해 국내 맥주회사들이 발끈하며 해명한 바 있다.

그가 꼽은 OB골든라거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함이었다. 처음 느껴지는 강렬한 호프의 꽃향기와 은은한 몰트의 맛, 적절한 탄산이 조화된 기본에 충실한 맛이라는 것. 한국 요리 중엔 약간 쌉쌀하면서도 적당한 기름기와 해물의 맛이 풍부한 해물파전이 맥주와 가장 잘 어울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100종 이상의 다양한 맥주가 소개되면서 맥주는 이제 맛을 음미하는 주류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더 맛있는 맥주를 즐기고 싶어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효순기자 hjs@metroseoul.co.kr

랍 셀먼의 '맥주 즐기는 요령'

▲맥주를 따르고 화끈한 호프의 아로마(향)부터 음미한 뒤 마시세요.

▲맥주잔을 세척할 때 수건으로 닦지 마세요. 보풀이나 세균, 악취가 남을 수 있어요.

▲시원한 맥주를 마시겠다고 잔을 얼리진 마세요. 맥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요.

▲거품을 줄이려고 맥주잔에 병을 대고 따르지 마세요. 45도 각도로 컵을 잡고 그 중앙을 향해 맥주를 따르세요. 맥주가 절반 정도 차오르면 잔을 세워서 잔의 중앙을 겨냥하며 채우세요.

▲입에 맥주를 잠시 머금고 데우면 입안 구석구석으로 향과 맛이 강해져요.

세계 최대 22kg 용량 드럼세탁기

LG전자 'G프로젝트' 1호

2015년 글로벌 가전 시장 1등 달성을 목표로 내건 LG전자가 19일 야심찬 'G프로젝트'를 공개했다.

G프로젝트는 최대 용량이면서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의미하는 'Great', 쉽고 편리하면서 감성적인 교감까지 제공하는 스마트 기능을 뜻하는 'Genius', 새로운 감성을 지닌 디자인을 의미하는 'Good Design'으로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세탁기·냉장고·에어컨·스타일러·김치냉장고·오븐·로봇청소기 등 전 분야에 걸쳐 G프로젝트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LG전자는 G프로젝트 1호 제품으로 세계 최대 용량인 22kg 드럼세탁기를 출시했다.

헨드타월을 한 번에 100장 이상 세탁할 수 있는 크기로 세탁조가 커지면서 세탁물의 낙차폭이 증가하고, 원심력이 좋아져 세탁·탈수 성능이 크게 개선됐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G프로젝트 1호 제품 출시를 기념해 예약 판매 행사가 진행된다. 세계 최대 용량 드럼세탁기 예약 고객 중 선착순 2200명에게 특별 할인 판매(120만원대)한다.

/전효순기자

르네상스호텔서 '영화같은 봄 밤'

'스프링 주말 패키지' 출시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3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 가능한 '스프링 주말 패키지'를 출시한다.

총 3가지로 구성된 이번 패키지는 객실 내 무료 인터넷, 실내 수영장,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사우나 5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공통으로 주어진다.

'스프링 세이빙 패키지'는 디럭스 객실 1박과 기본 공통 혜택이 제공된다. '스프링 딜라이트 패키지'는 디럭스 객실 1박+카페 헬리케 2인 조식+레드와인 1병+초콜릿+객실 내 무료 영화 1편, 무료 무선 인터넷이 포함돼 있다. '스프링 패밀리 패키지'는 디럭스 객실 1박+카페 헬리케 2인 조식+12세 이하 자녀(최대 2명) 조식 무료+객실 내 무료 영화 1편+마르게리따 피자 1판과 음료 2잔+과일 플래터 등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18만5000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부터다. 문의 02)2222-8500

/박지원기자

봄방학 나들이땐 '고기 테이크아웃'

강강술래 포장상품 할인 한돈구이 최대 42% 저렴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아이들의 봄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테이크아웃용 포장상품을 대상으로 파격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돼지고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돈농가를 돕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돈양념구이1호(1kg·4인분)는 3만6000원, 한돈양념구이2호(2kg·8인분)는 7만200원 등 최대 42% 할인 판매한다.

HACCP 인증시설에서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생산된 간편가정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세트(350ml·5팩·10인분)는 2만2000원이다. 방부제를 뺀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는 2만5200원 등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고양 농부농원점은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포장상품 1+1 행사를 통해 돼지양념구이(500g·1만원)와 한돈양념구이(500g·1만5000원), 순례양념구이(1대·2만9000원)를 파격가로 제공한다.

산업점은 다음달 3일까지 한돈양념구이(500g·1만5000원) '1+1' 행사와 함께 한우불고기 포장상품을 64% 할인된 1만원에 선보인다. 상계점도 오는 2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돼지양념구이(500g·1만원), 한돈양념구이(500g·1만5000원) 포장상품 1+1 행사를 벌인다.

350g짜리 등산화 신어볼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19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다이내믹 하이킹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350g 초경량 등산화 '2013 다이내믹 하이킹'과 의류, 가방 등이다.

성룡은 DMZ·므라즈는 북촌…

VIP전문 여행사 코스모진 방한 해외 스타들에 추천

지난 18일 액션스타 성룡(사진)을 시작으로 올해 해외 스타들이 줄줄이 방한할 예정이다. 해외스타들에게 멋진 추억을 남겨 줄 여행지는 어딜까. 외국인 VIP 전문 여행사 코스모진이 스타들에게 딱 맞는 명소를 추천했다.

액션영화의 히어로인 성룡과 아널드 슈워제네거에게는 DMZ와 JSA 투어가 제격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만큼 외국인들에게 흥미로운 곳이 될 수 있다. 특히 이곳을 방문한 뒤엔 한번도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월과 8월에 내한 공연을 ... 제이슨 므라즈와 뉴에이지 음악 그룹 시크릿 가든에겐 전통미가 물씬 느껴지는 북촌한옥마을 을 추천한다. 주변에 인사동·삼청동·경복궁 등이 모여 있어 짧은 시간에 한국을 경험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다.

코스모진 정령진 대표는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으로 한국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방한하는 해외 셀러브리티들이 늘고 있다"며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런던행 비즈니스석 특가

영국항공(BA)은 다음달 18일까지 서울~런던 왕복노선의 '클럽 월드' 비즈니스 클래스를 250만원(공항세·유류할증료 제외)에 특가 판매한다.

정상가 330만원보다 24% 이상 할인된 가격이다. 특가 항공권은 이날부터 7월 20일까지 여행하는 일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BA의 비즈니스 클래스는 완전 평면 침대와 개인용 스크린, 노트북·핸드백 전용 공간 등을 제공한다.

달력 휙 넘기니 "아싸!"

이쉬웠던 설 연휴 뒤 찾아온 꿀맛같은 3·1절 연휴가 나가온다. 개학을 앞둔 자녀들과 마지막 스키장 여행은 어떨까. 아니면 국경일이 끼어있는 만큼 애국심을 고취시킨 여행도 좋겠다.

가벼운 주머니로 망설였던 스키장 나들이는 이번 연휴가 기회다. 폐장을 앞두고 주요 스키장들이 막판 할인 중이다.

평창 알펜시아는 이달 말까지 5차 시즌권을 어른 8만원, 어린이 7만원에 판매한다. 또 알펜시아 호텔과 콘도에 투숙하는 고객들은 40%씩 할인해준다.

파인리조트는 이달 말까지 매주 일요일을 '양지 어린이날'로 지정해 부모는 50%, 아이는 70%까지 리프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중·고

GO! 삼일절 연휴 2색여행

막바지 할인 스키장서 씽씽 울릉~독도 국토여행 뭉클

대학생도 학생임을 증명하면 리프트를 주중 60%, 주말 50%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스키를 즐기며 하룻밤 편히 쉴 수 있는 스키장 패키지도 여럿이다.

웰리힐리파크는 객실과 리프트 8시간으로 구성한 '웰리 스노 패키지(2인)'를 주중 15만6000원, 주말 17만9000원에 내놨다. 휘닉스파크는 다음달 2일까지 콘도 스탠다드 또는 호텔 1박과 리프트 주간권, 조식 뷔페가 포함된 겨울 패키지를 최대 70%까지 싸게 선보인다.

마냥 노는 것도 좋지만 3·1절의 정신을 기리는 여행도 의미 있다.

우리테마투어는 3월 1일 2박3일 일정의 '울릉도·독도 탐방 프로그램'(34만5000원)을 진행한다.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해 동해 묵호항을 거쳐 뱃길로 울릉도 도동항에 닿는다. 첫날 나리분지, 내수전, 봉래폭포 등 울릉도 경관을 둘러보고 둘째 날 독도 탐방에 나서는 일정이다. 울릉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물론 호박엿, 오징어 불회, 홍합밥 등 먹을거리도 풍부하다.

/박지원기자

star bag

'힐링캠프' 월요예능 1위

배우 김강우의 출연에 힘입어 SBS '힐링캠프 기쁘지아니한가'가 4개월 만에 월요 토크쇼 1위를 차지했다.

김강우는 MC 한혜진의 첫째 언니 한무영씨의 남편으로 18일 방송에서 한혜진조차 몰랐던 부부의 러브 스토리를 공개하며 깨알 같은 재미를 선사했다. 이날 시청률은 10.7%(AGB 닐슨미디어리서치)로 지난주 최민수 편보다 4.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남자의 기술' 단독MC 맡아

방송인 박은지가 XTM '남자의 기술' 단독 MC를 맡았다.

'남자의 기술'은 연애·처세·재테크 등 남자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비법을 전달하는 강의쇼로 박은지는 "여성의 시각을 더해 남성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를 전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가수 브라이언을 게스트로 초청하고 다음달 7일 첫 방송을 시작한다.

버버리 패션쇼 한국대표로

배우 김희선이 한국 대표로 영국에서 열린 버버리 패션쇼에 참석했다.

18일(현지시간) 런던의 켄싱턴 가든에서 열린 2013 F/W 시즌 버버리 프로섬 여성 컬렉션 패션쇼에 초대된 그는 케이트 베킨세일·조미 등 세계적인 배우들과 쇼를 관람했다. 김희선은 현재 윤종신·신동엽과 함께 SBS 새 토크쇼 '화신'의 MC로 활약 중이다.

'일요일이 좋다' 합류 확정

방송인 강호동이 유재석과 SBS '일요일이 좋다'를 나란히 책임진다.

19일 소속사 SM C&C에 따르면 강호동은 '일요일이 좋다 – K팝 스타 2' 후속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새 프로그램은 현재 강호동과 '스타킹'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장혁재 PD가 연출하며 'K팝 스타 2'는 4월 막을 내린다.

내 캐릭터 살아야 다른 배우 살죠

21일 개봉될 '신세계'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배우를 고르라면 단연 황정민(43)이다.
여수 화교 출신의 건달 보스 정청 역을 맡아 특유의 건들거리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연기로 생동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위의 이 같은 호평에 그는 "함께 출연한 (이)정재나 (최)민식 형님에 비해 액션이 많아
외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며
"정삼각형의 인물 구도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신세계' 건달 보스 역 황정민

▶작품 캐스팅부터 촬영까지

섭외 과정에서 흔들리고 아니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이번처럼 좋은 작품은 단역으로라도 출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였다.

전작 '부당거래'의 시나리오 작가였던 박훈정 감독과 스태프가 다시 뭉치고, '연기 9단' 최민식이 일찌감치 출연을 마음먹었던 것도 흔쾌히 합류를 결심한 계기였다. "민식 형님이 먼저 들어와 계시고 정재까지 출연한다는데 캐스팅 제의를 거절하면 바보죠. 또 사적으로도 무척 친한 제작진이 '재미있게 일해보자'고 꼬드기는데 안 넘어갈 수 없었어요."

조직에 위장 잠입한 언더커버 경찰 이자성 역의 이정재를 보면서는 '부당거래'에서 자신이 연기했던 최철기가 떠올랐다. 별다른 움직임과 표정 없이 짧은 대사로만 내면의 갈등을 전달하는 점이 많이 닮아서였다. 당시 힘들게 촬영했던 경험이 생각나 "답답해 미치겠다"며 하소연하는 이정재에게 위로와 조언을 수시로 건넸다.

정중동의 감정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정재와 최민식을 의식해 연기 수위를 낮출까 고민도 했다. 그러나 어렵게 내린 결론은 시나리오가 그린 대로 충실히 연기하자는 것이었다. 자신의 캐릭터가 살지 않으면 덩달아 최민식과 이정재까지도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결과 주연 배우들의 호흡만큼은 최근 공개된 한국 영화들 가운데 가장 치진 작품이 나오게 됐다.

▶인물 감정에 초점 맞춰 보세요

걸쭉한 사투리도 사투리지만 중국어 연기에 도전했다. 전라도 사투리는 마당극 경험이 있어 비교적 쉬웠지만 중국어는 정말 어려웠다.

극중 수족인 변호사 역의 실제 화교 배우가 모든 대사를 녹음해줘 촬영 두 달 전부터 달달 외웠으나, 발음과 억양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후시 녹음 때 대역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선 마음 편히 연기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며 다시 녹음할 필요 없겠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개봉 후 중국어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제작진한테 책임을 돌릴 생각입니다. 하하하."

누아르 장르치고 액션 장면이 많지 않은 데다 호흡 역시 빠르지 않아 살짝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여전히 2G 피처폰을 이용하고 있는 황정민 또한 '빠름~ 빠름~'에 익숙한 젊은 관객들에 어떻게 보여질지 걱정이 많다.

액션에 집중하기보다는 캐릭터들의 감정을 따라가주길 하는 바람이다. 관객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질주하는 세 인물을 보면서 '나라면 어떤 길을 선택할까'란 번쯤 고민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

▶향후 활동 계획과 목표

두 달 후면 강우석 감독과 손잡은 '전설의 주먹'이 개봉된다. 이 영화에선 격투기 리얼리티쇼에 출연하는 고교 시절 파이터 출신의 국수집 사장 역을 맡아 석 달 넘게 술을 끊고 강훈련을 소화하며 복근까지 어렵게 만들었다.

40대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은 몸 쓰는 연기가 견딜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이 탓인지 추위에 경수록 약해지고 있어 큰일이라고 애써 털어놨다. 매니저에게 농담 삼아 "겨울에 촬영하는 작품은 가급적 피하자"고 얘기했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뮤지컬 제작과 연출·주연에 영화까지 바쁘게 뛰었다. 올해는 잘 쉬면서 일하는 게 목표다. 4월 크랭크인 예정인 '팍팍한' 느낌의 멜로물을 끝내고 나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전체관람가 등급 영화에 출연하길 희망한다. "아이의 성장이 작품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죠. 배우란 직업에 앞서 가장이라면 당연한 마음일 듯싶어요. 기가 막힌 가족영화 어디 없을까요?"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 디자인/양성혁

> 생동감 있는 연기 호평에
> 균형 맞추기 노력했을 뿐
> 중국어 대사 만만치 않아
> 다음엔 가족영화 찍고파

'접시꽃 당신' 남기고 하늘로

박철수 영화감독 별세

박철수(사진) 감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해 영화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박 감독이 19일 새벽 경기 분당 작업실 인근인 용인 죽전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윤모(36)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윤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2%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년 65세인 고인은 1979년 '밤이면 내리는 비'로 데뷔한 뒤 MBC PD로 입사해 '베스트셀러극장' 등으로 80년대 초중반 TV 단막극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85년 윤여정 주연의 모성 복수극 '에미'로 영화계에 복귀한 뒤 '접시꽃 당신' '안개기둥' '물위를 걷는 여자' 등 섬세한 감성의 멜로영화를 주로 연출해 당대의 흥행 거장으로 인정받았다.

95년 '301, 302'부터는 성과 에로티시즘을 직설적으로 파헤치는 독립영화 연출에 주력하며 선댄스 등 여러 해외 영화제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봉자' '녹색의자'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등을 쉬지 않고 선보였으며 유작은 지난달 중순 개봉됐던 '베드'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21일, 장지는 용인시립공원이다.

/조성준기자 when@

"성폭행 사건 부끄럼 없다"

박시후 혐의 부인…"강제적 관계 결코 아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시후(사진)가 "강제성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박시후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양과 술자리를 가진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결단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을 떠나 그동안 변함없는 믿음과 큰 사랑을 보내준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팬 여러분이 우려하는 위력 행사는 전혀 없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8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연예인 지망생 A(22)씨가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지인의 소개로 박씨와 술자리를 함께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조만간 박시후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현미기자 tak1427@metroseoul.co.kr

노현정-박상아 검찰소환 임박

자녀 부정입학 혐의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와 탤런트 박상아가 자녀 부정입학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노현정과 박상아의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달 중에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말 자녀를 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정 박상아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노씨와 박씨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학관련 서류를 위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1차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노현정은 2006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손자 대선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미국에서 출산했다. 박상아는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첫 딸을 낳았다.

/권보람기자

고 박용하 매니저 수억원대 예금 빼돌리려다…

고 박용하(사진)의 매니저가 수억원대의 예금을 빼돌리려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고 박용하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예금을 빼돌리려 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등)로 매니저 이모(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고인이 사망한 지 열흘 만인 2010년 7월 7일 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해오던 예금 1867만9800여 엔(한화 약 2억 4000만여 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은행 직원의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같은 달 14일에는 청담동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사진집 40권을 비롯해 시가 2645만원 상당의 앨범과 사무실 집기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매니저로서 예금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었으며, 고인의 물품은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장하려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박용하씨는 2010년 6월 30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권보람기자 kwon@

유튜브 최고 인기 K-팝스타? 싸이 아닌 '빅뱅'

빅뱅(사진)이 싸이를 제치고 유튜브에서 가장 탄탄한 팬 층을 보유한 스타로 뽑혔다.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월 초 기준 조회 수 상위 15개 동영상 중 빅뱅의 '몬스터'는 조회 수 대비 댓글 수 비율이 평균의 1.652배, 조회 수 대비 좋아요 버튼을 누른 수의 비율이 평균의 1.420배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12억4125만건으로 압도적인 조회 수를 기록했지만, 조회 수 대비 댓글 수의 비율은 평균의 1.04배, 조회 수 대비 좋아요 버튼을 누른 수의 비율은 평균의 87%에 그쳤다.

소녀의 잔혹한 성장담 '위험한 매력'

film review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스토커

노출장면 없어도 팽팽한 성적 긴장감

따지고 보면 박찬욱 감독의 진짜 관심사는 대부분 '여자'였다. '친절한 금자씨'를 시작으로 이 같은 성향이 무척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그가 창조해낸 여성 캐릭터들을 보면 하나같이 범상치 않았다. 선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유의지를 실천하는 영화 속 여주인공들의 모습이 그랬다.

28일 개봉될 박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 '스토커' 역시 여자, 구체적으로는 소녀의 잔혹한 성장담을 그린다. 태평양 너머로 활동 무대를 옮겨서도 자신의 작가적 야성을 구현하고 인장을 남기는 데 충실했다는 얘기다.

열여덟 살 생일에 유일하게 믿고 따르던 아빠(더모트 멀로니)를 사고로 잃은 인디아(미아 바시코브스카)는 존재조차 몰랐던 삼촌 찰리(매슈 구드)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찜찜하다. 남편의 죽음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엄마 이블린(니콜 키드먼)은 찰리에게 호감을 드러내며 의지하고, 인디아는 엄마의 이 같은 변화를 기분 나쁘게 지켜볼 뿐이다. 찰리가 인디아의 주위를 끊임없이 맴도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영화는 별다른 노출 장면 없어도 시종일관 팽팽한 성적 긴장감을 내뿜는다. 피아노를 함께 치며 기묘하게 교감하는 인디아와 찰리, 와인을 나눠 마시면서 서로를 유혹하는 찰리와 이블린의 모습은 일종의 삼각관계처럼 묘사된다. 또 모녀지간인 인디아와 이블린은 죽은 아빠일 수도 혹은 찰리일 수도 있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연적으로 그려진다.

원죄의 출발점과 파멸의 종착지로 가족을 다뤘던 '금자씨'와 '올드보이' 그리고 '박쥐'의 연장 선상에 있는 대목이다.

성적 긴장감은 인디아의 변화를 증명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엄마와 찰리의 밀회 장면에 충격을 받은 인디아가 같은 학교 남학생을 유혹하고, 굽 없는 새들 슈즈에서 성숙한 여인을 상징하는 하이힐로 갈아신은 뒤 내재된 광기를 발산하는 모습은 극도로 위험해 보이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비교적 대중적인 화법을 구사하지만, 전작들처럼 일부 불친절한 구석이 있어 모든 장면을 꼼꼼히 따져 보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행여라도 몇몇 장면을 허투루 넘겼다가는 마지막 한 조각이 없어 퍼즐을 완성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경험할 수도 있겠다.

박 감독은 이번 작품으로 할리우드에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존재감을 과시했다. 근래 들어 비영어권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거둔 성과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말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또디

by 정연식

<598> 대결3

wind8685@naver.com

김지운 감독 강동원 신민아

김지운 감독·강동원·신민아 '하이드&시크'로 호흡 맞춰

김지운 감독이 국내 복귀작에서 강동원·신민아와 호흡을 맞춘다.

영화 '라스트 스탠드'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김 감독은 단편 액션 스릴러 '하이드 & 시크'를 차기작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친 강동원은 윤종빈 감독의 영화 '군도' 촬영에 앞서 이번 영화로 복귀 신고식을 치른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 중 벌어지는 추격전을 다룬 이 영화에서 주인공 X 역을 맡았다.

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신민아는 비밀을 지닌 X의 여자친구 미아를 연기한다. 드라마 '유령'과 영화 '푸른소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던 배우 이솜이 X의 안전을 책임지는 요원 핑거스 역을 맡았다.

올봄 공개될 '하이드 & 시크'는 CGV가 지난달 세계 최초로 선보인 스크린X의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작품으로 주목받는다. 스크린X는 프레임을 스크린에만 한정하지 않고 상영관 공간 전체로 확대해 몰 스크린과 같은 시야각을 선사하는 멀티프로젝션 기술이자 특별관이다.

한편 '라스트 스탠드'를 홍보하기 위해 19일 내한한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한국 도착 후 호텔에도 가기 전에 첫 행선지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하이드 & 시크' 촬영장을 방문하며 김 감독에 대한 든든한 신뢰를 드러냈다.

/유순호기자 suno@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홍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 Hello 인사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료로합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Good evening.
B Good evening. 저는 잭 스미스라고 합니다.
A 저는 해리 존스예요. How are you?
B Very well, thanks. And you?
A 덕분에 잘 지냅니다.

정답 I'm Jack Smith. / I'm Harry Jones. / Fine, thank you.

생생영어팁

▶ 참~ 좋은 인사

사실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찌감치 배웠던 다음 문장들은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인사표현입니다.

A How are you?
B I'm fine, thanks. And you?
A I'm fine, too.

그런데 I'm fine, thanks. And you?를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이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웃음거리가 되곤 하는데요, fine과 thanks 사이에서는 약간의 숨을 쉬세요. thanks는 두리뭉실 '이렇게 의 같은 의 아니까요. 또 약간 쉰 다음에는 And you? 또는 How about yourself? 또는 And how are you?라고 상대의 안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전치사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as a result of	~의 결과로	as a result of restructuring 구조 조정의 결과로
at no charge	무료로	The software is available at no charge. 그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외에도, ~에 추가로	In addition to discounts, they offer giveaways. 그들은 할인 외에 경품도 제공한다
in search of	~를 찾아	in search of new suppliers 새로운 납품업체를 찾아
in spite of	~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 a heavy workload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in terms of	~의 측면에서	In terms of profitability 수익성의 측면에서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5, Propose a solution

답변 구성하며 말하기

• 배경 상황 정리하기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bought a book through our Web site last week.
저는 지난주에 당신이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책 한 권을 구입했다는 메시지를 확인 하였습니다.

음성 메시지의 내용 및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면서 선택하게 된 배경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준다. 대화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과 같은 구문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어간다. 음성 메시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 ~이라는 당신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are running a restaurant in town.
당신이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 **I was told that ~**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I was told that you ordered a cake from our store.
당신이 우리 가게에서 케이크를 주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I heard that ~**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I heard that you want to stay at our hotel.

2573만7737달러33센트의 비밀

류현진 포스팅금액 한국인 좋아하는 숫자로 조합

LA 다저스가 류현진(사진) 영입을 위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7과 3을 조합해 포스팅 금액을 적어내는 등 세심한 공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저스의 한국계 마케팅 담당자인 마틴 김은 19일 "구단의 허락을 받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류현진을 데려오려고 작년 후반기부터 움직였다"며 "스탠 캐스틴 사장과 네드 콜레티 단장 두 사람에게만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철저히 비밀스럽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틴 김은 캐스틴 사장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류현진을 영입했을 때 한국 마케팅 효과 등을 보고했다. 또 캐스틴 사장은 숫자 7과 3을 조합해 포스팅 금액 2573만7737달러33센트(약 277억원)를 적어냈다.

/김민준기자

김경문 감독 '영거주춤' 류중일(왼쪽) WBC 대표팀 감독과 김경문 NC 다이노스 감독이 19일 연습경기 시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자들 컨디션 아직은…

NC와 평가전 0-1 패… 선발 윤석민 3이닝 무실점

이상화 금빛 질벽지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상화가 19일 서울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94회 동계전국체육대회 여자 일반부 500m에서 38초45의 기록으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남자 일반부 500m에서는 모태범이 35초14의 대회 신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대표팀의 에이스 윤석민(KIA)이 무실점 호투했다.

윤석민은 19일 대만 도류시 도류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첫 평가전에서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안타 5개를 내주고 삼진 2개를 잡으며 실점하지 않았다. 직구·체인지업·슬라이더를 골고루 섞어 47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6km를 찍었다.

3회 시작부터 연속 3안타를 내줘 무사 만루 위기에 몰렸지만 NC의 클린업트리오 나성범·이호준·모창민을 가볍게 처리해 위기관리 능력도 뽐냈다.

윤석민의 뒤를 이은 서재응(KIA) 역시 2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 3번째 투수 손승락(넥센)이 1이닝 동안 2안타를 내주며 1실점을 했다. 7회부터 장원준(롯데), 박희수(SK), 오승환(삼성)이 차례로 등판해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특히 정대현은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해 듬직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타자들은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 고전했다. '꿈의 클린업트리오' 이승엽(삼성), 이대호(오릭스), 김태균(한화)이 3~5번을 맡아 선발 출전했지만 이대호가 1안타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이 무안타로 침묵해 결국 0-1로 패했다.

대표팀은 20일 같은 장소에서 NC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 대만 전력분석원 잠입 눈총

한편 다음달 5일 한국과 격돌하는 대만의 전력분석원 4명이 신분을 속이고 이날 경기장에 잠입해 눈총을 샀다. 심판 교육생으로 위장한 이들은 심판실로 들어가 한국 투수들이 세트 포지션에서 투구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등 대표팀 선수들을 면밀히 관찰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KBO 직원들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4회 경기장 밖으로 내보냈지만, 이미 이들은 대만전 선발이 유력한 윤석민의 투구 체크를 마친 상태였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셀타비고, 에레라 감독 경질

박주영(사진)이 소속된 셀타 비고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파코 에레라 감독을 경질했다.

셀타 비고는 19일 구단 홈페이지에 "이번 시즌 남은 기간 아벨 레시노 전 그라나다 감독이 팀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와 계약을 마쳤다"며 에레라 감독의 경질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셀타 비고는 이번 시즌 5승5무14패(승점 20)로 강등권인 18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6경기에서 4무2패로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부진에 빠져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손흥민 연봉 50억 찍나?

독일 언론 "함부르크 팀 내 최고 대우 재계약 협상"

유럽 명문 클럽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손흥민(21·함부르크)이 소속 구단과 파격적인 연봉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일간지 벨트는 19일 '손흥민을 둘러싼 포커게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손흥민의 에이전트인 티스 블리마이스터와 프랑크 아르네센 함부르크 단장이 지난주 새로 의견을 나눴다"며 "함부르크는 2014년 6월까지 계약된 손흥민과 2년 연장된 2016년 6월까지 재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봉은 팀 내 최고 수준의 금액이 제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손흥민의 연봉은 70만 유로(약 10억원)로 함부르크의 최고 연봉자는 380만 유로(약 55억원)를 받는 라파엘 반 더 바르트다. 벨트지의 예상대로라면 함부르크는 손흥민에게 300만 유로가 넘는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는 500% 가까이 연봉이 인상되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시즌 개막 전만 해도 함부르크는 손흥민과 2배 정도 인상된 연봉으로 재계약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손흥민이 이번 시즌 벌써 9골을 넣으며 맹활약을 펼치자 상황이 급변했다. 현재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리버풀 등이 손흥민의 영입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김민준기자

Grab it now!

매일 5가지를 하루종일 ₩4,500콤보